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1호 [부제 제25374호] 주제 105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인민보안상 내무군대장 최부일 동지, 인민보안성 조직부국장 내무군장장 림종환 동지를 비롯한 혁당 단위와 농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과일대풍을 이룩한 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8월의 뜨거운 폭양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꼭 1년만에 자기들의 일머를 또다시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맞이한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8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파수에서도 세계적인 최권을 쥐려는 만만한 야심을 안고 농장을 세계급지의 청춘과원, 인민의 과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진시킬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말씀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보안



안한안 만져보시며 땅이 꺼지게 달했다고, 포도송이같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규모있게 똑똑 뻗어간 과수밭에서 심심하게 자라는 과일나무까지 마다 사과알들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일철만, 사과 철만이라고 하시면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속에서도 매년에 없는 과일대풍이 이룩된것은 나라가 후한 창조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 생겨 처음 보는 과일대풍을 안아올 수 있는것은 인민보안성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이 기세로 나간다면 가까운 년간에 수만t의 과일을 생산해낼 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파수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금처럼 이악하게 투쟁하면 얼마든지 눈이 세운 과일생산목표도 정명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성과 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50여 정보의 파수밭을 새로 조성하고 수백 세대의 살림집들을 건설한것을 비롯하여 당에서 준 전무적과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함으로써 불과 1년사이에 농장의 면모를 보다 훌륭히 일신시켰을뿐만아니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풍요한 과일작황을 마련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지구전경사판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전방대에 오르시어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팔간대 없이 펼쳐진 파수의 바다를 바라보시며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남기신 애국유산, 애민유산의 하나이라고, 이곳을 지나다닐 때면 장군님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풍족히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며 팔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넉넉을 언제나 잊지 말고 해마다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는것으로써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올해 당이 제시한 과일생산목표를 정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을뿐만아니라 알알이 플라 수확한 첫물사과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는데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과일향기가 가득 넘쳐나는 농장의 파수밭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파수밭에 들어서시며 나무마다 가지가 휘도록 무수히 달린 사과알들을 한

2 면 으 로 계 속

